

# 어장 피해만 420ha... 윤장관·황대표 “어민 先보상 추진”

〈윤진숙〉 〈황우여〉

### 광양·남해까지 확산... 긴급영향조사 착수 정부 특별영여자금 등 278억원 지원 방침

## 여수 기름 유출

여수 낙포동 기름 유출 사고로 인근 어장 420ha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先)보상을 위해 사고 정유사인 GS칼텍스와 논의하고 있다.

5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31일 발생한 유조선 충돌로 유출된 기름이 10km 넓게 여수 일대 해역으로 퍼져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바다로 흘러든 기름때는 사고 현장 인근 신덕동을 비롯해 오천동, 만흥동, 광양만, 경남 남해군까지 퍼져 지자체와 어민들이 여새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 신덕·오천·만흥 어촌계에서만 335가구가 조업을 하는 등 여수시 어업권 면적만 286ha에 달해 피해액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이 유출돼 복귀해야 하는 피해지역 복구면적만 420ha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신덕동에는 어촌계 135가구를 비롯해 모두 260

여가구의 어민들이 120여ha의 공동어업 구역에서 바지락 등 패류, 미역·돛 등 해초류, 우럭 등을 주로 양식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바지락을 주로 수확하는 6개 어촌계에서 6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배 1척당 적게 잡아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을 고려할 때 300척에 모두 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리는 ‘여수 낙포동 원유2부두 기름 유출사고 피해 관련 대책회의’에서 피해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에서 “어민의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선보상을 하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별써 GS와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해당 피해지역에 특별영여자금 50억원 추가 배분하고 ▲바다순조성(15억원) ▲어업기반정비(22억원) ▲배합사료지원(10억원) ▲연안정비(48억원) ▲항만청소(7억원) 등 단계적으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5일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수시 신덕마을을 찾아 방제 활동을 벌이던 중 피해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153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지역 연안바다복합과 연안정비 등에 총 2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당직자 및 의원들과 함께 여수 기름유출 사고 피해 현장을 찾아 방제작업 지원에 나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도 신덕마을 주민과 만나 “가급적 선보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부라도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 및 유해물질연구단은 5일 여수해역에 대한 긴급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단은 이날 연구선박을 띄워 기름유출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10마일 이내 광양만 일대 30곳의 해수 채취에 나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로 어민 보상 적극 지원” “지금 웃음이 나오니까”

## 오운열 해수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 인터뷰

“기름 유출 사고로 발생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운열(52) 해양수산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은 4일 여수시 발령받은 뒤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6일 열리는 피해대책협의회 준비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잠시 앓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바빠 보였다.

수습대책단은 사고 이후 진행될 피해 보상·환경 복원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 단장은 기름 유출 사고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오 단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 “가장 시

급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어민 편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민 보상을 위해서는 생산 입증 자료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윤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는 6일 열리는 피해대책협의회에서 어민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주나 GS칼텍스 등 보상주체와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이어 “어민들의 경우 선주와 GS를 상대로 보상관련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해수부가 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보상 관련 법률절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는 기본적으로 어민들 편”이라며 “현 시점에서 선주, GS 측에 선지급금을 내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피

해 어민 입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상금 일부를 우선 선지급하는 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오 단장은 아울러 “방재에 이어 해양환경 복원을 통해 사고 발생 전으로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역민들도 방제 작업과 더불어 해양환경 오염 복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환경 복원을 위한 신속한 복원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새누리, 당정협에서 윤진숙 장관 답변태도 지적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어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과 선보상 촉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 다니까요”라며 반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으로부터 “우리는 하고 있는데 지구...” 이런 식의 답변은 장관으로서 지양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 장관은 또 답변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듯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오니까”, “지구 못지 말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나아가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발언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4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GS칼텍스가 가해자지 왜 1차 피해자냐”면서 “도선사 관리 등 기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인재이고, 그럼 GS칼텍스가 가해자 아니냐. 장관의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장관은 사고현장 방문에서 코를 막은 것과 관련해 “독감으로 인한 기침 때문이었다”는 해명과 “나프타가 유출돼 유독 냄새가 많이 나 심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언급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AI 인체감염 대비해야”

민주당-전문가 간담회, 백신개발 등

민주당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개최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AI가 인체로 감염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김 단장은 “H5N1, H5N8 등이 모두 잠재적 대유행 인플루엔자의 원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며 “AI가 가금류에 토착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박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H5N8형이 인체에 감염된다는 보고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들은 기존에 발생한 H5N1형 AI의 변종이 나타나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AI 발생 및 대유행 대비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사람으로부터 AI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 수립과 AI 바이러스 감염 억제 및 치료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개발연구소 안동호 상무는 “가장 염려되는 유행성 인플루엔자는 사람끼리 전염이 가능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대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중요하다”며 “백신 공급에 대비한 표준대응 지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역축제 줄줄이 취소

AI 여파... 남구·고싸움 해남·용접이축제 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의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또 3일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열고 있는 지자체들도 AI 확산 여부를 지켜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남군은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13일 문내면 우수영에서 열 예정인 ‘제3회 전라우수영 용접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안군도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압해도에서 개최 예정인 바다 토하 축제를 무기 연기했다. 신안군은 연안에서 잡히는 작은 새우와 비슷한 어종으로 ‘곤쟁이’로 잘 알려진 바다 토하를 로컬푸드로 홍보하고자 축제를 계획했었다.

광주에서도 남구정이 해마다 열고 있는 고싸움놀이 축제(오는 13일~15일)를 연기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남구 고싸움놀이가 연기된 것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두 번째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이동하다 보면 AI가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축제를 연기·축소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들도 AI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종-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박은광주안과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려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품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현천로 246번길 3